

0~2세 무상보육 끝내 폐기

정부, 소득 하위 70% 가정 양육보조금 지급 추진

정치권 반발 대선정국 복지 포퓰리즘 논란일 듯

내년 3월부터 시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소득 상위 30% 계층의 반발과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무상보육을 강하게 추진했던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대선을 앞둔 정국에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물론 집권당인 새누리당까지 수용 불가 원칙을 밝혀 정부안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 가족 기

준 약 524만원 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연령별로 현금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만 양육수당을 받았다.

또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 대신 보육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보육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는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결국,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로 내야한다는 얘기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거나 산간벽지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기 어려운 소득 하위 70% 가구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역시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 같은 정부의 개편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줄어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반발과 함께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업주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지원되는 보육비 바우처(아이사랑 카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여아의 반발로 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0~2세 무상보육은 우리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한들한들 가을 코스모스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24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생태공원에 만개한 코스모스가 가을 하늘과 어울려 운치를 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당일치기 관람...돈 안되는 동네잔치

지역축제 이대론 안된다...툭 지역경제 효과

전국 축제·행사 관람객들의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축제·행사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립하고 있는 축제의 성공 자체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비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최근 발간한 '2011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축제에 다녀간 관람객은 1인당 평균 5만2817원을 썼고, 이는 최근 3년 평균값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비 평균이 8121원, 쇼핑비 1만4898원으로 지난 2001년 숙박비

5904원, 1만2782원보다 증가해 해당 지역에서 머물면서 소비하는 관람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람객들이 축제를 보고 지역에 머물면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이벤트로 평가되는 광주 충장로 축제의 평균 숙박비는 3107원이었고, ▲함평나비축제 6432원 ▲강진청자축제 5480원 ▲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축제에 다녀간 관람객은 1인당 평균 5만2817원을 썼고, 이는 최근 3년 평균값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비 평균이 8121원, 쇼핑비 1만4898원으로 지난 2001년 숙박비

평균 1만4970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 때문에 많게는 수백여원을 들이는 이 지역 축제·행사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상인 김모(49)씨는 "충장로축제를 하면 금남로 일대 차량통행이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제되면서 지하상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축제·행사 개최를 빌미로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금융권과 기업에 기부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축제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남지역 한 업체는 "시·군급고는 의무적으로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업체별로 '행사장 인근에 80만원을 내

고 애드벌룬을 띄워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보성다향제추진위원회는 2008~2009년 지역의 19개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걷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제·행사 규모를 줄이더라도 지역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관람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의 한옥이나 민박 등과 연계하고, 갯벌 체험과 농사 체험 등 지역민들이 주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제와 지역민의 소득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5·16, 유신, 인혁당 헌법 가치 훼손"

박근혜 과거사 사과... "유가족 아픔 치유 노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4일 5·16 쿠데타, 유신, 인혁당 사건 등 자신의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관련기사 3면>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 역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박 후보는 "저는 국민 대통합 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민께서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저도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었기에 역사

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며 국민의 감성에 이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제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날 사과는 그동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과거사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과거사 논란 확산과 지지율 하락이 연동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지지율 등락 등 대선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수시2차
■원서접수 : 11. 12(월) ~ 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 11. 12(월) ~ 30(금)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전국 올 지역축제 2400개...광주·전남 183개

올 한해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지역축제가 24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전국 시·도별 축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개최하는 축제는 모두 2429개에 이른다.

서울이 751개로 가장 많고, 경기(368개), 강원(161개), 경북(143개)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56개, 전남은 127개다.

/박진표기자lucky@

IOPE 스킨리프트

농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 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글케어, 리얼이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 코렉터
IOPE

Wrinkle Care Whitening Lifting Anti-Aging Pore Care Throat Care Sun Care Hydrating

